

# 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거부하면 은폐 세력”

박홍근 “다음주 요구서 처리해야”  
정의당·무소속과 공조도 시사  
한덕수·이상민·윤희근 파면 촉구  
주호영 “범위·시기 등 논의 필요”

국조를 관철할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민 뜻에 반하려면 정외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해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 대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파면도 재차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내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감 있게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무엇보다 정부 대응에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영선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는 사건 축소와 책임 전가에만 골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라며 “정 위원장의 제안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들과 협력해

기동민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총리, 이 장관, 윤 정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더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김진태 강원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국가)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다”는 질문에는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찰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또 탄도미사일 3발 발사...ICBM 추정 1발 실패 가능성

윤 대통령 긴급 NSC 소집

한미 연합방위태세 만전 지시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8시 39분께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각각 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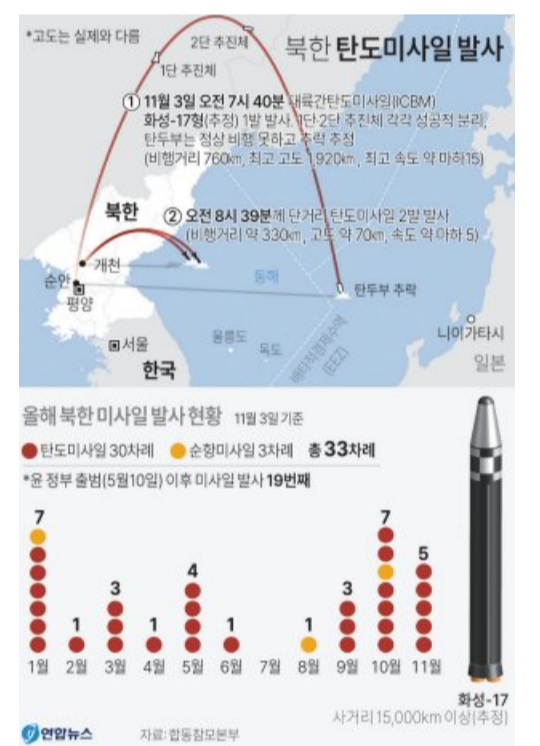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단 분리가 이뤄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며 이에 따라 군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 2000km로 약 750km를 비행하다가 상공에서 소실돼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고, 우리 군도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로 보고 강력 규탄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해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 행태를 개탄하고,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임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이태원 참사’ 후 윤 대통령 지지율 31% 유지

NBS 조사...부정 평가 1%P 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째 30% 초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지난 10월 1주차에 29%로 떨어졌다가 직전 조사인 10월 3주차에 31%로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p) 오른 6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포인트 오른 60%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1%이었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 지지도는 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7일 국회 행안위...이상민·윤희근 책임 추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3일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홍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

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참사 관련 긴급 현안 보고만 있었고, 별도

의 현안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하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한다.

야당은 참사 발생 원인 등을 놓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상대로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속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소프트웨어 (SW)

빅데이터인공지능 (AI)

미디어컨텐츠 (VR)

디지털리터시 (오피스활용)

062)380-0606, 06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